

“RYU WIN!”



LA ‘한국의 날’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류현진과 신시내티 레즈 추신수가 2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LA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와의 홈경기에서 투타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역대 15번째로 벌어진 한국인 투수와 타자 대결에서 류현진이 추신수를 2타수 무안타로 막아 판정승했다. 이날 한인 팬 1만여명 등 총 5만2675명이 입장해 전 좌석 매진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류현진 9K·9승 ... 추신수와 맞대결 1볼넷·1땅볼·1삼진 ‘판정승’

1500루타 치고... 고개속인 김주찬

70닝 1실점 ‘환상적’ LA 1위 굳건히 지켜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의 원소 투수 류현진(26)이 ‘추추 트레인’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를 넘어 시즌 9승째를 수확했다. 류현진은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20번째 선발 등판, 7이닝 동안 안타 2개와 볼넷 1개만 허용하고 1점으로 상대 감탄사를 이끌어냈다.

5회 1사 후부터 6회 2사까지 4타자 연속 삼진을 낚는 등 탈삼진 9개를 곁들인 류현진은 3-1로 앞선 7회말 공격에서 대타 제리 헤어스턴으로 교체됐다.

팀이 4-1로 이기며 류현진은 후반기 2연승과 함께 9승(3패)째를 올렸다. 평균자책점은 3.25에서 3.14로 좋아졌다.

역대 15번째로 벌어진 한국인 투수와 타자 대결에서는 추신수를 2타수 무안타로 막아 판정승했다.

류현진은 1회 추신수를 볼넷으로 걸었으나 3회 전매특허인 체인지업을 던져 1루 땅볼로 잡았다. 6회에도 원바운드로 떨어지는 커브를 던져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전날까지 홈에서 4승 1패, 평균자책점 1.90을 기록한 류현진의 감정이 빛을 발했다. 탈삼진 능력을 되찾고 땅볼 유도 능력도 뽐내는 등 압도적인 내용으로 지난 두 경기의 부진을 말끔히 떨쳐냈다.

빅리그 첫 완봉승을 올린 5월 29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경기에서 안타 2개를 내준 뒤 경기 최소 안타 타이를 이뤘다. 탈삼진은 5월 1일 콜로라도전(12회)에 이어 한 경기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 등 변화구의 위력이 더해져 류현진은 이날 땅볼 11개(흔공 1개)를 잡고 상대 타선을 쉽게 제압했다.

2010년 7월 30일 박찬호(당시 뉴욕 양키스)-추신수(당시 클리블랜드)의 대결 이후 3년 만에 벌어진 한국인 투-타 대결을 맞아 집중력을 발휘한 류현진이 1회부터 괴력을 발휘했다. 2회 선두 타자 제이 브루스에게 우월 솔로 아치(시즌 11번째 피홈런)를 허용한 것이 유일한 흠이었다.

‘닥터K’ 류현진 삼진쇼 (※헛스윙 삼진은 붉은색 K, 루킹 삼진은 파란색 K)

2회초	3회초	3회초	4회초	5회초	5회초	6회초	6회초	7회초
K	K	K	K	K	K	K	K	K
8번 코자트 151km 직구 (3B2S 30아웃)	9번 아로요 124km 체인지업 (2B2S 10아웃)	3번 보토 153km 직구 (2S 30아웃)	5번 브루스 140km 슬라이더 (3B2S 20아웃)	8번 코자트 130km 체인지업 (3B2S 20아웃)	9번 아로요 127km 체인지업 (2B2S 30아웃)	1번 추신수 120km 커브 (2B2S 10아웃)	2번 헤이시 148km 직구 (2S 20아웃)	6번 프레이저 124km 슬라이더 (3B2S 30아웃)

류현진 “신수형 안타 못쳐 안타까워”



“(추)신수 형 상대할 때 신경 많이 썼다.”

27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와 한국인 메이저리

거 맞대결에서 완승한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은 “컨디션이 아주 좋았는데 첫 타자로 나온 신수형 때부터 강하게 던졌더니 경기내내 빠르고 힘있는 공이 나왔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또 “직구 힘이 좋다 보니 변화구도 낮게 잘 제구돼 편한 경기를 했다”면서 “목표 상향 조정은 10승을 달성한 뒤에 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직구 스피드가 정말 좋았다. ▲1번 타자 때부터 강하게 던졌던 게 아주 빠른 공이 들어갔다. 경기내내 빠르고 힘있는 공이 들어갔다. -오늘은 특별한 경기였는데 다른 경기와 달랐다.

▲다른 경기보다 긴장했다. 홈에서 추신수 형과 첫 대결이라 긴장감이 높았다. -한인 팬들이 많이 와서 응원했는데. ▲한인 팬들 앞에서 좋은 모습 보여줘 기쁘다. -오늘 추신수에게 특별히 신경써서 던졌다. ▲생각 많이 했다. 파워도 있고 잘 맞는 선수라서 초구부터 강하게 나갔고 집중했다. 모든 구종을 다 집중해서 던졌다. -투자릿수 승수가 목표였는데 상황 조절할 의사는 없다. ▲10승 한 뒤에 조정해보겠다.

추신수 “현진이가 경기를 지배했다”



류현진과 처음 맞대결을 펼친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류현진의 투구를 극찬했다. 추신수는 27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류현진

선발등판 경기를 마친 뒤 “류현진이 완전히 경기를 지배했다”면서 “류현진은 메이저리거 어떤 팀에 가도 2, 3선발은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에 앞서 경기 비디오도 보고 기록지도 분석했지만 실제 타석에서 상대해본 류현진의 공은 더 위협적이었고 특히 완공 조절이 아주 뛰어났다고 설명했다. 추신수는 “류현진의 투구 패턴을 연구했지만 허를 찔렀다”고 털어놨다. 추신수는 “원소 투수가 원소 타자에게 체인지업을 잘 안 던진다. 더구나 그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면서 “기록에 보니 류현진도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거기서 체인지업이 들어왔다”고 류현진의 노림수에 혀를 내둘렀다. 손과 팔에 통증이 있어 “100% 정상 컨디션은 아니다”라고 밝힌 추신수는 “몸이 좀 아파도 경기에 들어가면 다 잊어버리고 한다”면서 “몸 상태를 핑계대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인 팬이 많은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오후 4시 열린 홈경기에서 류현진이 2루수로서 8회말 홈런을 치며 10승을 올렸고 추신수는 1루수로서 8회말 홈런을 치며 100루타를 달성했다. 류현진은 2루수로서 1500루타를 달성했다. 류현진은 2루수로서 1500루타를 달성했다. 류현진은 2루수로서 1500루타를 달성했다.

NC전 패배에 빛바랜 기록

패배에 묻힌 개인 기록. KIA 김주찬은 지난 27일 NC와의 원정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1500루타를 완성했다. 프로야구 통산 65번째 기록이다. 3회초 선두타자로 나온 김주찬은 좌익수 키를 넘기는 타구로 3루까지 내달린 뒤 4회 2사 3루에서 적시타를 때려내며 1500루타를 채웠다. 4-3으로 승부를 뒤집는 타점까지 더한 값인 1500루타였지만, 5회 NC 나성범의 역전 투런과 7회 호랑이 군단의 심장에 박힌 모창민의 ছেগি 슬라이더가 터지면서 경기는 4-8 재역전패로 끝났다. 부상투혼 속에 나온 기록이라 더 아쉬움이 남았다. 김주찬은 아픈 손목을 어루만지며 2번 자리를 지켰지만 끝내기 패에 이어 다시 또 NC에 일격을 당하면서 씁쓸한 1500루타 경기가 됐다. 돌아온 에이스 윤석민의 1100이닝도 조용히 채워졌다. 윤석민은 지난 25일 1100이닝에 2.1이닝을 남겨준 채 LG 타자들과의 상대에 나섰다. 3회 손주인을 상대로 좌익수 플라이를 잡아내며 1100이닝을 달성한 51번째 투수가 됐지만 완투패 투수로도 이름을 남겼다. 윤석민은 이날 8회까지 8피안타 1볼넷 4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며 에이



KIA 김주찬

스의 귀환을 앞둔 팀 타선이 단 1점도 빼지 못하면서 경기는 0-1 영봉패로 끝났다. 9시즌 만에 1100이닝을 넘긴 윤석민에게 잊지 못할 완투패의 기록도 더해졌다. 개인 통산 두 번째 완투패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예비 호랑이’ 차명진 복치고 장구치고

효천고 청룡기 16강 이끌어

광주일고·진흥고는 탈락

순천 효천고 에이스 차명진이 청룡기 16강 진출을 이끌었다. 서창기 감독이 이끄는 효천고가 28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고교야구 주말리그 후반기 왕중왕전 겸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경남고를 8-2로 꺾고 16강에 합류했다. KIA의 1차 지명을 받은 차명진이 승리의 주역이었다. 차명진은 6회까지 산발 6안타를 맞았지만 실점없이 경남고 타선을 묶었다. 7회 박계범에게 마운드를 몰려주고 외야로 자리를

옮긴 차명진은 8-2로 앞선 9회 무사 1·2루에서 다시 투수로 변신했다. 차명진은 공 3개로 병살타와 유격수 땅볼을 만들며 승리를 지켰다. 7번 타자로 나서 2루타 포함 3타수 2안타 2득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난적 경남고를 꺾은 효천고는 31일 오후 3시 잠실구장에서 우승후보 덕수고와 8강 진출을 다툰다. 한편 광주 진흥고 하영민은 서울고를 상대로 8.2이닝 5피안타2볼넷 12탈삼진의 역투를 하고도 2사2·3루에서 나온 좌익수의 실책으로 0-1 경기의 패전투수가 됐다. 광주일고도 장충고에 2-3으로 져 16강 진출이 무산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